

# 2020년 한가위 가정예배

오늘은 추석입니다. 2020년 9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곁에 있어 준 가족과 친지들, 이웃을 돌아보며 이날을 맞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를 있게 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신 조상님의 은덕을 기립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 신앙고백 ..... 다 함 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 찬 송 .....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 다 함 께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후렴 :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아멘)

## 기 도 ..... 가족 중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땅의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마다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저희 가족을 이만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중단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모여 마음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진 귀와 가슴을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가위 명절에 우리는 삶의 결실을 어떻게 맺으며, 하나님께 드릴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며, 이 일로 인해 유형무형의 시련을 겪는 사람들의 사정을 보살펴 주옵소서. 비록 생활환경에 이런 저런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가족 각자에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헤쳐나갈 힘과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어주시리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성경봉독 ..... 이사야 25:6-8 ..... 자녀 중에서

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8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 설 교 ..... 한 뼘 길이 ..... 설 교 자

## 찬 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다 함 께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 션으 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 고 동기를 사랑에 뭉 쳐잇 고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 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가



후렴  
 믿음 의 반석도 든든하 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 라  
 기쁨 과 설움도 같이 하 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라  
 한상 에 둘러서 먹고 마 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라



고마워 라 임마누 엘 예 수만 섬기는 우 리 집



고마워 라 임마누 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 루

## 주의기도 ..... 다 함 께

##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이사야 24-27장은 '이사야의 묵시록'입니다. 유다의 운명이 바벨론의 거센 침략 앞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쏜불 같을 때,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위해 세우신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적군의 무차별적인 공격 앞에 죽어가고, 그들의 무자비한 약탈 앞에 굶주리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한 잔치상을 차려 주십니다.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 곧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마음으로 통곡하며 얼굴에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더 나아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위협할 때 자주 쓰던 '죽여버린다'는 위협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이 멸망을 당해 사라집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너 죽인다'는 위협을 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상은 그래서 생명의 잔치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오늘 무덤 앞에 선 우리에게, 그리고 코로나19 앞에 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가신 조상님들, 우리 가족들을 추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그분들에게는 이미 '사망이 영원히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들에게 새하늘과 새땅에 사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라' (계 21:3-4) 이에 하나님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전 4:5)고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며'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보다 먼저 받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장차 그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파가 우리에게 밀려오더라도 겁내지 맙시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처신을 조심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따라 가며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폐지된 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하늘과 새땅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새 시대와 그 중에 유익한 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 준비를 합시다.

비록 2020년이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오직 한 분, 십자가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드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부활하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여유로운 마음과 평화로운 생활과 형통한 미래가 우리 가족 각 사람과 가정에 날마다 새롭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 2020년 한가위 성묘예배

수도교회